

## 두 개의 ‘애국’과 ‘악연’

### : 세계적 육종학자 우장춘과 흥릉 참봉 고영근

####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우범선의 아들, 우장춘

해마다 8월 10일이 되면 백발의 노회한 학자들과 한국 농학을 이끌어 가는 연구자들이 모여 수원 여기산을 오른다. 이들 농학자들이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여기산을 찾는 이유는 우장춘(1898~1959)의 기일을 맞아 그 묘역을 참배하기 위해서이다.

세계적 육종학자인 우장춘은 1898년 우범선과 일본인 사카이 나카(酒井ナカ)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우범선은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후 일본으로 망명하였기 때문에 우장춘은 일본에서 출생했다. 우범선은 1903년 명성황후의 충신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우장춘의 어린 시절은 매우 곤궁했다. 어머니가 힘들게 살림을 꾸려 나갔지만 여의치 않아 고아원에서 생활하기도 했고, 망국의 조선인이라며 차별과 멸시를 받았다. 우장춘은 역적의 아들이자 망명 조선인의 후예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성장했다.

우장춘은 1916년 도쿄대학교 농학부 농학실과에 입학했다. 대학시절에 독립운동가 김철수를 만나게 되어 아버지의 매국적 행위를 소상히



우장춘의 아버지 우범선과 어머니(국가기록원 제공)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려면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다. 우장춘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원예의 중심지인 고노스 농사시험장에서 근무를 하면



중앙원예기술원 시절 우장춘(국가기록원 제공)

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했다. 1936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논문 『종의 합성』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일본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사시험장에서 강제로 해임됐다. 이후 도쿄의 다키이 종묘 회사에 초대 연구 농장장이 되어 1945년 사임하기 전까지 종자 연구를 지속했다.

## 해방 조국의 희망, 우장춘

1950년 3월 우장춘은 신세 살의 나이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돌아왔다. 아버지가 조선을 떠날 때보다 나이가 더 들어서였다. 귀국할 때 부산 동래기영회가 도움을 주었는데, 기영회는 한국자금도 마련하고 금정산 기슭에 시험장도 준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해방 후 피폐한 한국 농촌

을 살리기 위해 우장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우장춘은 일본 가족생활비로 마련해 준 한국자금으로 서적, 실험용 기구, 각종 종자 등 연구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돌아왔다.

귀국하자마자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소장, 농업재건임시위원회 위원, 중앙원예기술원 원장, 임시농업지도요원양성소 부소장을 역임하며 붕괴된 한국 종자 시스템을 재건하고 한국 농업의 기초를 닦는 일에 주력했다. 그의 노력으로 한국인 식생활의 기초 작물인 무와 배추 등 종자 국산화와 농가 소득원을 확대할 상품 작물 연구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역적의 아들로 태어나 굴곡진 삶을 살았던 우장춘은 해방된 조국에서 새롭게 탄생한 대한민국 농학계의 주춧돌이 됐다. 우장춘은 종자의 국산화를 통해 그의 다른 조국인 일본의 채소종자 시장 독점을 막아낼 수 있었다.

종자 독립이 이루어질수록 그의 건강은 나빠졌고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1959년 8월



권선구 서둔동 여기산에 있는 우장춘 박사 묘역(국가기록원 제공)



1967년 이목동 원예시험장 신축청사 낙성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10일 62세 나이로 사망했다. 국가에서는 장의 위원회를 결성하여 사회장을 치렀고, 각계 인사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서둔동 여기산에 안장됐다. 죽음이 임박하자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문화 포상을 수여하여 공을 기렸다.

우장춘이 몸담았던 중앙원예기술원은 1962년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으로 개칭한 후 1967

년 수원시의 이목동으로 옮겨 왔고, 2008년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개편됐다. 2015년 2월 수원에서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이전했는데, 한국 원예 진흥을 위한 품종 육성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선도하고 원예특작산업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 흥릉 참봉 고영근의 묘역과 마주하다

여기산 우장춘 묘역과 북쪽 5km 떨어진 이목동에는 명성황후의 심복이었던 고영근의 묘역이 있다. 고영근은 한말 경상좌도병마절도사, 중추원의관, 황국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고, 황국협회를 탈퇴한 이후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 가담하는 등 근대개화운동에 참여했다.

한편 고영근은 개인사적으로 보면 우장춘과



장안구 이목동 산39-2번지에 있는 고영근 묘역

악연일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그는 바로 우장춘의 아버지 우범선을 암살한 인물이다, 즉 고영근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우범선을 쫓아가 1903년 처단했는데,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발생한 지 8년 만이었다. 고영근은 우범선 암살 후 일본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 받았으나, 고종의 선처요청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1911년 국내로 송환되어 석방된 고영근은 일제가 사여한 모든 관작을 사양하고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의 능참봉으로 재직했다. 고종 사후 조선왕조가 이왕가로 격하된 상황에서 “대한제국 황제”라고 쓰인 비석을 세웠다는 이유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파직됐지만, 능참봉에서 해임

되고서도 주변에 초가집을 짓고 살면서 끝까지 능을 지켰다.

1923년 사망한 고영근은 은평구 불광동에 묻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영근의 묘역은 우장춘의 활동 기반이었던 원예시험장(중앙원예기술원 후신)이 이목동으로 이전한 다음 해인 1968년 이목동으로 이장됐다. 지금은 묘역에 봉분과 쓰러진 신도비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친일파인 우범선을 암살했지만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 고영근과 그가 죽인 우범선의 아들 우장춘의 묘역은 가깝고도 먼 그들의 사이처럼 거리를 두고 어색하게 마주하고 있다.

글 유현희 수원학연구센터 센터장